

방문동거(F-1-5) 사증 관련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**1. 심사기준 강화**

- 결혼이민자의 부모
  - 부모에게 2007년생(포함)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모가 모두 입국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 중 1명에만 사증 발급 허용
  - 국내 체류 목적, 초청 사유 및 가정 내 역할,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 제한
-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전혼자녀
  - 부모가 입국하기 어렵다는 사유에 관한 소명이 미흡한 경우 사증 발급 불허
  - 예: 부모의 진단서(가벼운 질환 등)는 제출하였으나, 그 진단서와 부모가 입국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
-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추가
  - 초청인 본인 여부 및 초청 의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

**2. 심사기간 연장**

- 심사기간(발급 예정일)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(근무일 기준)
  - 기존에 접수된 신청건도 심사기간이 30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, 최근 사증 신청이 급증하여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.
  - 서류 미비, 정밀 심사 대상 등의 경우 발급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에 대한 전화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3. 기타 유의사항(불허 사례)**

- 사증발급 신청서,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
  - (피)초청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(또는)
  - (피)초청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: 배우자 또는 업체가 대신 작성한 경우)
  - 기재 항목을 누락했거나, 부실하게 기재했거나,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
- 제출한 각 서류의 서명,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
  - 예: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날인한 도장이 인감(도장)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**4. 시행일자**

- 즉시(기 접수된 신청건 포함)
  - 단, 인감증명서 제출은 2022.3.2.(수) 신청건부터 적용